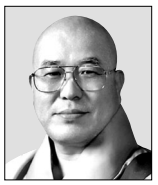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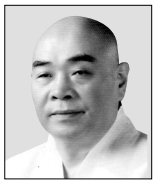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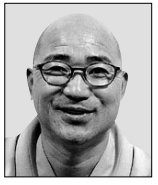
추석맞이 자비나눔행 서울 도선사 조실 현승 스님은 8월 13~29일 서대문구 어르신 240명에게 삼계탕을, 9월 1일 서대문구 소외계층 120명에게 쌀 120포대를 보시했다.



진흥원, 농업경 강좌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에서 매주 목요일 농업경 25원통법문 강좌를 진행한다.



금강경 1만독 독송법회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8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금강경 1만독 독송법회에 입재했다.



저소득장애인 겨울나기 축제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종호 스님은 8월 24일 홀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장애인을 후원하는 겨울나기 나눔축제를 개최했다.



우리문화유산강의 9월부터 前 문화재청장 유홍준 교수가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9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02)763-8233



지랑스런대한민국대상 수상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이권식 원장이 9월 2일 국회현정기법관에서 2014지랑스런대한민국대상 사회봉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완도불교문화대학 초청명사 특강

김성훈 前농림부 장관 '장보고와 이순신' 주제로



완도불교문화대학(학장 법일)은 9월 3일 김성훈 前농림부장관(사단법인 장보고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초청해 신홍사 교육관 하심당에서 특별강연을 열었다.

완도불교문화대학 2학기 개강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특강은 '장보고와 이순신 그리고 완도'라는 주제로 열렸다. 강연에는 불교대학 교직원 및 학생, 지역주민들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동삼 완도군 의회 의장, 김주 신홍사 신도회장, 마광남 (사)장보고연구회 회장, 객태웅 (사)장보고기념사업회 전남지부장 등이 참가해 축사를 전했다. 한편, 완도불교문화대학은 완도지역 최초의 재가불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해 3월 5일 설립됐다. 노덕현 기자

“국보인 석가탑과 1:1 크기 그대로”

호국 3층보탑 제막법회 여는 청련사 주지 백우 스님



왕십리에 위치해 있던 태고종 청련사(옛 안정사, 주지 백우 스님·사진)가 경기도 양주시 장흥으로 이전 후 '천년 호국도량'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국보 제 21호인 석가탑을 싣물 크기로 재현한 '호국 3층보탑'을 건립해 화제다.

백우 스님은 9월 2일 서울 평창동 AWC컨벤션 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우리 불교문화의 큰 자랑인 석가탑을 1:1 크기로 그대로 재현한 호국3층보탑을 건립함으로써 청련사가 호국 안녕을 위해 건립했던 안정사의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고종 승정 및 원로급 대종사인 백우 주지 스님은 도량이전과 함께 사찰 성보문화재인 탑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대종 스님들과 발원기도를 올리고 3년이 넘는 불사 끝에 오는 9월 20일 오전 10시 '호국 3층보탑 점안식 및 제막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백우 스님은 이날 "제막식에 앞서 9월 16일 스리랑카 대통령이 직접 봉증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호국삼층보탑에 봉안할 것"이라며 "이로써 청련사는 명실상부한 통일기원 호국도량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부푼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백

스리랑카 대통령 직접 봉증한 부처님 진신사리 1과 봉안

유리병과 목탑보탑 제외하곤 실제 석가탑 완전 재현

우 스님은 "석재도 중국산이 아닌 경기도 포천의 화강석을 사용했으며, 한국문화재 기능 995호이며 성공기능협회 부회장이던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가 맡아 최고의 수준으로 제작했다"고 3층 석탑의 제작과정을 설명했다. 백우 스님은 또한 "탑의 신앙성 문제, 즉 사리를 봉안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2층 탑신석에 석가탑과 똑같은 크기로 공간

을 만들었고, 사리공양구도 석가탑과 똑같이 조성했으며, 다만 유리병을 은병으로, 목탑보탑을 철탑으로 대체한 것 빼고는 모두 똑같이 재현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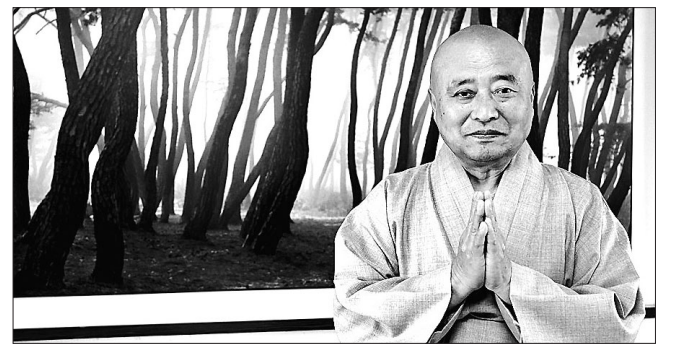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백우 스님은 "우리가 흔히 석가탑사 간과하는 호국신앙을 청련사 호국 3층보탑을 조성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다"며 "석가탑 안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나왔다는 것은 이 탑이 호국신앙을 상징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탑 불사를 백우 스님과 함께 기획한 박경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도 "옛 안정사인 청련사의 호국사찰 성격답게 탑 명칭을 호국 3층석탑으로 정했다"며 "이 탑은 석가탑을 내외부 구조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국내 최초의 탑이 될 것이어서 불교 미술사적 의미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경주 불국사 석가탑 해체보수 현장을 방문해 내부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그대도 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기단 내부 적심이 석가탑에는 자연석이지만, 호국 3층보탑에서는 화강암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쌓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외형은 석가탑과 똑같이 하고, 내부구조도 석가탑을 원형에 가깝게 조성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기부 이후 신도들의 보시 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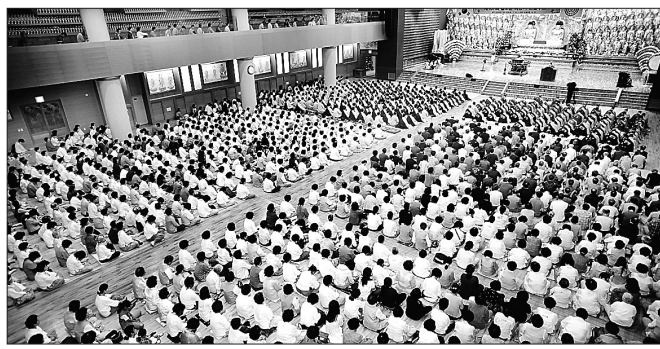


지난해 5월 30년간 승복을 꿰매 입으며 모은 전 재산 6억원을 기부해 화제가 된 현웅 스님이 동국대에 다시 1억원을 기부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욱)는 9월 3일 "그 동안 동국대에 7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달한 부산 영일암 주지 현웅 스님이 또 다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현웅 스님은 사찰이 소재한 가장군에서 4무(無) 스님으로 통한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자동차, 인터넷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스님은 문명의 이기와 담을 쌓고 살아온 지 오래다. 40대 중반에 출가해 출가할 때 생년 30년 된 승복을 아직도 기워 입으며 지낸다. 수 십 차례 기우기를 반복한 승복은 이제 낡고 헤져 더 이상 손볼 곳조차 없는 상태. '누더기 스님'으로 불리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토록 청빈한 삶을 살아온 현웅 스님의 아름다운 나눔은 언론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스님은 2007년 사찰이 소유했던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았던 보상금 중 1억 원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발전을 위해 기부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운영해 온 사찰의 모든 재산 6억 원을 인재봉사를 위해 동국대에 기부했다. 이후에도 스님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매학기 동국대에 전달해오고 있다. 계속된 스님의 자비행에 감동한 신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보시금을 시주했지만, 스님은 이마저도 인재양성을 위해 회향했다. 스님은 "신도들이 심시할만 모은 정성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데 사용된다면 그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107회 재가불자 하안거 해제



천태종 재가불자 2000여 명이 한 달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정진한 107회 하안거가 원만 회향했다.

천태종은 8월 30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 종정예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등 사부대중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7회 갑오년 하안거 한달 수도 해제식'을 봉행했다.

해제식 사회는 교무부장 경혜 스님, 집전은 부 책임노전 구수 스님이 맡았으며 △삼귀의 △찬불가(보현행원)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법어 봉독(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국운용창 기원 △해제법어 △해제사 △이수중 수여 △관음정진 △구기인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구인사 하안거에는 남자 167명, 여자 846명 등 총 1013명이 안거에 동참했다. 김주일 기자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 진지희



아역배우 진지희(15)가 '제7회 서울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최희우)가 주최하는 서울노인영화제 개막을 앞둔 9월 4일, 진지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화를 제작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우리보다 의욕이 넘쳐 멋지다"며 "박해일 삼촌의 뒤를 이어 청소년 대표로 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다"고 밝혔다.

진지희는 2009년 방송된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킵'에 출연, "뽕뽕뽕"을 외치며 인기를 모았다. 홍보대사에는 배우 장광씨도 선정됐다.

제7회 서울노인영화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슬로건으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극장에서 진행된다. 노인을 주제로 한 단편경쟁작 38편과 초청작 19편을 더해 총 57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해외초청 부문이 신설됐으며 초청작 중 애니메이션 영화를 전시해 체험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조계사 추석맞이 템플라이프



8월 31일 조계사(주지 원명)가 마하이주빈단체협의회(상임대표 진오) 소속 이주노동자들을 초청해 추석맞이 템플라이프 '한아름'을 실시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이 그리운 이주노동자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한국명절문화를 함께 체험해보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몽골,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 150여 명이 송편빚기, 연꽃 컵등 만들기를 하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는가 하면 스님과의 차담과 간화선 체험을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을 찾았다.

조계사 전법국장 지현 스님은 "국적과 말은 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며 "불교계가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를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한아름 서로 인아주는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